

임술통신사(1682) 필담집 『한사수구록(韓使手口錄)』 연구*

한 태 문**

차 례

1. 들어가기
2. 『韓使手口錄』의 형성 배경
 - 1) 임술통신사(1682)의 방일과 양국 문사의 교류
 - 2) 막부 儒官으로서 교류 내용의 기록 의지
3. 『韓使手口錄』의 형식상 특징
4. 『韓使手口錄』의 내용상 특징
 - 1) 새로운 문화교류 주체의 등장
 - 2) 문화교류 현장의 생생한 묘사
 - 3) 人見友元和 흥세대의 진솔한 交遊
 - 4) 문화교류의 구체적 양상 반영
5. 마무리

국문초록

이 글은 임술통신사(1682) 필담집인 『韓使手口錄』에 대해 살핀 것이다. 첫째, 『韓使手口錄』의 형성 배경을 살폈다. 임술통신사는 조선을 대표하는 문화적 소양을 갖춘 사행원이 대거 참여한 문화사절이었다. 일본 측 인사들도 통신사를 맞아 접대하는 본연의 임무 외에 적극적으로 교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교수

류에 나선 결과, 20일을 머문 江戸에서 다양한 문화교류가 펼쳐질 수 있었다. 人見友元은 접대를 맡은 막부의 儒官으로, 사행원과 일본인의 교류를 주선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필담을 기록하려는 의지에서 『韓使手口錄』을 엮게 되었다.

둘째, 『韓使手口錄』의 형식상 특징을 살폈다. 『韓使手口錄』은 항목 중심이 아니라 일기체로 기록된 필담집으로, 날씨는 빠져 있지만 교류의 시간과 공간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 또 시문도 수록하고 있지만 필담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오로지 人見友元 개인의 관점에서 江戸에서 이루어진 필담만을 담고 있다. 다만, 인명의 기록에는 이름·호·관직 등을 섞어 쓰는 등 다소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韓使手口錄』의 내용상 특징을 살폈다. 『韓使手口錄』에는 제술관 외에 이전의 사행록이나 필담창화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소동’이라는 새로운 문화교류의 주체가 등장한다. 또 꼼꼼하고 상세한 기록으로 당시 문화교류 현상이 생동감 있게 묘사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필담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정보도 알려 준다. 특히 人見友元과 흥세태의 국경을 초월한 친숙한 사귀기가 잘 드러날 뿐 아니라, 필담·창화·서화·음악·의학·서적 등 통신사를 통한 양국의 다양한 문화교류 양상도 구체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韓使手口錄』은 임술통신사가 江戸에 머물고 있을 때 이루어진 필담을 통해 양국 문사 교류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문화교류사적 의의를 지닌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주제어: 히토미 유켄(人見友元), 한사수구록(韓使手口錄), 임술통신사(1682), 필담, 문화교류

1. 들어가기

조선후기 對日 외교사절인 통신사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연구사까지만큼이나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곧 『日鮮史話』(松田甲, 1926)·『近世日朝關係史の研究』(三宅英利, 1986)와 『大系 朝鮮通信使』(辛基秀·仲尾宏, 1996)로 대표되는 일본에서의 통신사 관련 연구 및 자료수집과 함께, 국내에서도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2008), 『조선후기 통신사 필담창화집 번역총서』(2013), 『통신사 사행록 번역총서』(2018) 등이 잇달아 발간되는 등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통신사 연구는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곧 특정 시기 통신사와 일본 측 문인들이 남긴 사행 관련 기록에 대한 연구의 소외현상이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18세기에 집중되고, 17·19세기 통신사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또 한국 측 ‘사행록’과 일본 측 ‘필담창화집’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되, 정작 통신사를 맞아 교류한 일본 문인 개인의 필담집이나 사행록에는 그리 주목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임술통신사(1682) 때 막부 儒官으로 통신사를 접대한 人見友元의 필담집 『韓使手口錄』은 기존 연구가 지닌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韓使手口錄』에 대한 연구는 松田甲이 『日鮮史話』 제1편에 「人見鶴山と洪滄浪」을 수록한 데서 비롯한다.¹⁾ 그는 『鶴山筆談』과 『天和來聘韓客手口錄』을 통해 임술사행에서 이루어진 人見友元和 통신사 자제군관 洪世泰의 교류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후의 연구는 이원식·箕輪吉次·구지현·장진엽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²⁾ 이원식은 「天和度朝鮮信使裨

1) 松田 甲, 『日鮮史話』, 朝鮮總督府, 1926, 77-104쪽.

2) 이원식, 「天和度朝鮮信使裨將洪世泰と日本文士の筆談唱酬について」, 『조선학보』98집, 조선학회, 1981.; 『朝鮮通信使の研究』, 思文閣出版, 1997.; 箕輪吉次, 「동아시아 문화교류와 통신사 필담창화집; 임술(壬戌) 1682년 사행(使行)과 후지산시(富士山詩)」, 『동방학지』 153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將洪世泰と日本文士の筆談唱酬について』에서 홍세태를 중심으로 人見友元으로 대표되는 일본문사와의 교류를 다루었다. 또 『朝鮮通信使の研究』에서는 「人見友元と洪滄浪」이란 항목을 두어 홍세태가 人見友元에게 부친 편지와 시를 조명하고 있다. 箕輪吉次는 임술사행의 창수집을 언급하면서 『韓使手口錄』에 반영된 양국 문사의 ‘富士山詩’를, 구지현은 임술통신사를 통한 양국 교류의 경향을 『鮮桑筆語』와 『和韓唱酬集』 등 창수집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면서 『韓使手口錄』을 다루었다. 그리고 장진엽은 임술통신사에 자제군관으로 참여한 홍세태를 조명하면서 『韓使手口錄』에 등장하는 46살 人見友元과 30세 홍세태와의 첫 만남 및 그 이후 후손까지 이어진 교류에 대해 살폈다.

이상의 기존 연구는 『韓使手口錄』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거나 개괄적 검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한일 양국의 통신사 연구에서 『韓使手口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편적 검토나 부분적 활용이 아니라, 『韓使手口錄』을 대상으로 형성배경, 형식·내용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韓使手口錄』의 형성 배경

1) 임술통신사(1682)의 방일과 양국 문사의 교류

을미통신사(1655) 이후 무려 27년 만에 이루어진 조선의 임술통신사 파견은 일본의 將軍 습직과 관련이 있었다. 곧 막부의 4대 將軍인 德川家綱이 죽고 동생 德川綱吉이 5대 장군이 되자, 1681년 일본 측에서 조선에 慶弔을 위한 통신사의 파견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조선 조정은 포

2011.; 구지현, 「1682년 한일 문사 교류 담당층의 확립과 소통의 확대」, 『열상고전연구』 32집, 열상고전연구회, 2010.; 장진엽, 『조선과 일본, 소통을 꿈꾸다』, 민속원, 2022.

면적으로 慶弔사행의 모습을 띠되, 무역 및 사행에 대한 상호 약조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현안 해결에 더 큰 의의를 두고 입술통신사의 파견을 결정했다. 입술통신사는 4차례나 종사관이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682년 5월 8일, 정사 윤지원, 부사 이언강, 종사관 박경후를 비롯한 총 473명의 인원으로 184일 간의 머나먼 사행길에 올랐다.³⁾

입술통신사는 이전 사행과 달리 일본 측으로부터 ‘글·글씨·그림에 능한 이, 말을 잘 다루는 이, 활 잘 쏘고 말 잘 타는 이, 힘이 센 사람들 데리고 오도록’⁴⁾ 요청을 받아 조선을 대표하는 문화인들이 대거 참여한 사행이었다. 그 가운데 ‘글과 글씨’에 능한 대표적인 직책으로 제술관·서기·사자관 등이 있었다. 특히 제술관과 서기는 계미통신사(1763) 정사 조엄이 기록한 것처럼⁵⁾ 일본인과의 시문창화에 대응할 수 있는 탁월한 문장가가 선발되었다. 일찍이 조선전기 경인통신사(1590)에 차천로가 ‘제술관’이란 이름으로 참여해 일본 땅에 이름을 날린 바가 있지만, 조선 후기 통신사행에서 제술관이 등장하는 것은 입술통신사가 처음이다.⁶⁾

제술관으로는 서얼인 成琬이 낙점 받았다. 그는 28세(1666)에 사마시에 합격한 이래 자신을 소동파에 비길 정도로 일필휘지의 창작능력을 자랑했던⁷⁾ 인물이었다. 사행에 있어 문서와 기록을 담당했던 ‘서기’도 공식적인 업무 외에 제술관과 함께 일본인들과 필담창화를 나누었는데,

3) 한태문, 『1682년 통신사 필담창화집 『화한창수집』에 반영된 한일문화교류 연구』, 『한국민족문화』 78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1, 69쪽. 李彥綱이 종사관으로 낙점되었지만, 장령(4품)으로 승진하는 바람에 부사로 낙점되고, 종사관은 朴致道-林泳-申畢 등을 거쳐 朴慶後로 최종 낙점되었다.

4) 『增訂交隣志』, 권5, 『新行各年例』, <肅宗八年壬戌>, “能文能書能畫能馭善射善騎有膂力者帶來”.

5) 조엄, 『해사일기』1, 1763년 8월 3일, “製述官書記 欲其文字之酬應也”.

6) 물론 그 이전의 통신사행에서도 명칭만 다를 뿐 비슷한 역할을 한 직책으로 ‘학관’(1607)·‘이문학관’(1636)·‘독축관’(1643·1655) 등이 있다. 장순순, 『조선후기 통신사행의 제술관에 대한 일고찰』, 『전북사학』 13집, 전북사학회, 1990, 38쪽.

7) 임벽, 『天倪錄』, 34장, 『孟道人携遊和詩』, “成琬者…雖長篇大作 使人秉筆 口呼如流 一揮而就 至自比於東坡”.

임재·이담령이 선발되었다. 이밖에 사자관·역관·자제군관·양의 등 다양한 직임을 가진 사행원들도 한결같이 문학적 소양과 학문에 대한 조예가 깊은 이들이 선발되었다.

특히 江戸는 사행의 최종 목적지로 1~2일 머물던 다른 노정에 비해 8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무려 20일을 머문 곳이기에 다양한 문화교류를 펼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 게다가 일본 측 인사들도 통신사에 대한 인사와 접대가 주된 임무이긴 해도 통신사와의 교류에 적극적이었다. 그 결과 통신사를 통한 양국의 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2) 막부 儒官으로서 교류 내용의 기록 의지

달리 ‘人見竹洞’으로도 불리는 『韓使手口錄』의 저자 人見友元(1638~1696)의 본래 성씨는 小野, 이름은 節, 자가 宜卿인데 보통 又七郎이라 부르며, 호는 龜山·北山·鶴山·葛民·竹洞·括峯散人·菊廬·梅竹主人 등이다. 1638년 12월 8일 京都에서 막부의 의관이던 人見玄徳의 아들로 태어나 9세에 당대 일본에서 儒宗으로 일컬어지던 林羅山の 문하에 들어갔다.⁸⁾ 이후 林羅山の 셋째 아들이자 막부의 儒官으로 집안의 私塾을 막부의 학교와 같은 급으로 승격시킨 林鷺峰(林恕)에게 배워 막부의 儒官이 되었다. 林羅山·林鷺峰 두 부자가 엮은 일본통사 『本朝通鑑』의 편수에도 참여하였고, 『鶴山筆談』·『日光參詣記』 등의 저작도 남겼다.

그는 일찍이 을미통신사(1655) 종사관 남용익으로부터 ‘나이 겨우 이십 세 남짓이지만 모습이 청명하고 응대하는 것이 공손하며, 그 재주는 書辭를 통하고 詩律을 지을 줄 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⁹⁾ 임술통신사행에서는 접대를 총괄하는 책임을 맡은 林鳳岡을 보좌하는 막부의 儒官

8) 松田 甲, 『日鮮史話』, 제1편, 「人見鶴山と洪滄浪」, 朝鮮總督府, 1926, 78쪽.

9) 남용익, 『문견별록』, 「인물」, <稱爲文士者八人>, “人見友元 年纔二十餘 姿狀清明 應對恭謹 其才亦足以通書辭 製詩律”.

이었기에 다른 일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선의 문사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韓使手口錄』에 의하면, 人見友元을 비롯한 일본인들은 江戸의 本誓寺·願行寺·對馬藩 京邸 등에서 통신사와 교류를 펼쳤다. 이를 날짜별로 살펴보면 本誓寺(8/23~26, 8/29~9/2, 9/6, 9/8, 9/11), 願行寺(9/5), 本誓寺 및 願行寺(9/10), 對馬藩 京邸(9/7, 9/9) 등으로 나타난다. 本誓寺는 정미통신사(1607) 때부터 줄곧 통신사의 숙소로 활용되었던 사찰이고,¹⁰⁾ 願行寺는 對馬島主의 숙소이다. 그리고 對馬藩 京邸는 江戸에 있던 대마도주의 집으로, 국서전명식을 끝낸 세 사신을 위로하기 위한 연회를 베풀 때 주로 활용되었는데, 이때 마상재 공연도 함께 펼쳐졌다. 통신사의 숙소를 중심으로 대마도주를 비롯한 對馬藩의 관계자와 막부가 파견한 館伴·接待役 등이 30여 개의 사찰에 나누어 머무는 것이 통례였다.¹¹⁾

세 곳을 중심으로 형성된 양국 관계자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필담창화로 이어졌다.

임술년(1682) 가을, 東都를 방문한 조선 사람들은 300여 인이었다. 그 가운데 文才를 갖춘 사람은 윤동산(윤지완), 이노호(이언강), 박죽암(박경후) 세 사신과 진사 성취허(성완)·이반곡(이담령)과 비장 홍창량(홍세태), 판사 안신재(안신휘) 몇 사람뿐이었다. 문자를 조금 이해하는 사람으로는 의관 정두준, 비장 차의린, 사자관 이삼석, 동자 박성익·배봉장 같은 부류가 더러 있었다. 나는 여러 차례 객관에 가서 그들을 맞아 접대하였다.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아 통역을 쓰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기도 하며 부채로 상 위에 쓰기도 하고 붓으로 서로 이야기하기

10) 本誓寺는 이후에 큰 화재를 만나 深川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신묘통신사(1711)부터는 淺草의 東本願寺가 통신사의 숙소가 되었다. 신기수·仲尾 宏, 『圖說·朝鮮通信使 旅』, 明石書店, 2000, 90쪽.

11) 박화진·김병두, 『에도 공간 속의 통신사-1711년 신묘통신사행을 중심으로』, 한울아카데미, 2010, 104쪽. 신묘통신사(1711)의 경우 통신사는 東本願寺와 崇福寺, 대마도주는 德本寺, 관반은 善照寺, 접대역은 源際寺에서 숙박한 것으로 나타난다.

도 했다. 마침 기억하고 있는 것이나 소매 속에 넣어온 필담은 대략 적었지만, 적지 못한 것도 오히려 많았다. 며칠 동안 자리를 함께하고 마주 앉아서 필담을 나누는 사람이 여러 명이었고, 내 붓을 빌린 사람도 역시 많았다. 그래서 아울러 그것들을 기록하고 ‘韓使手口錄’이라고 하였다.¹²⁾

人見友元이 필담집의 이름을 『韓使手口錄』으로 지은 이유를 밝히고 있는 대목이다. ‘手口’는 일찍이 소동파가 귀머거리 의사인 龐安常과 필담을 나누며 ‘나는 손으로 입노릇하고, 그대는 눈으로 귀노릇을 한다.’고 농담한 데서 따온 것이다.¹³⁾ ‘내 붓을 빌린 사람도 역시 많았다.’라는 표현은 사행원과의 필담이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일본 관계자들이 나누는 필담도 자신이 대필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韓使手口錄』은 本誓寺·願行寺·對馬藩 京邸 등의 공간에서 통신사를 상대로 일본 관계자들이 나누는 필담을 기록하여 남기려는 人見友元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물인 셈이다.

3. 『韓使手口錄』의 형식상 특징

人見友元의 『韓使手口錄』은 현재 일본 國立公文書館 內閣文庫에 ㉠ 『韓使手口錄』(청구번호 178-0534), ㉡ 『韓使手口錄』(청구번호 178-0561), ㉢ 『韓使手口錄』(청구번호 178-0663) 등 3종류가 진한다. ㉠은 표제가

12) 人見友元, 『韓使手口錄』 서문, “壬戌之秋 朝鮮致聘來於東都者 三百餘人 其中有文者 三官使尹東山李鷺湖朴竹庵 及進士成翠虛李盤谷 裨將洪滄浪 判事安慎齊數人耳 稍解文字者 醫官鄭斗俊 裨將車義鱗 寫字官李三錫 童子朴成益裴鳳章之類 間有焉 余屢之其客館接遇之 然言語不通 或以譯語 或以指書地 或以扇書牀 或以筆相話 偶有諳之者 有袖筆語者 略記之 其不記者 猶多矣 數日之間 同席連牀筆語者數人 乃假余之筆者 亦多矣 因併錄之曰 韓使手口錄”.

13) 人見友元, 『韓使手口錄』 서문, “昔龐安常有聾疾 東坡與之筆談戲曰 我以手爲口 卿以目爲耳”.

『韓使手口錄 完』으로 되어 있고, 글씨체가 확연히 달라 적어도 2명 이상이 筆寫한 것으로 보이며, 맨 뒤에 ‘暮春月晚閱了 西藩 宇高剛’이라는 讀書記가 달려 있다. ㉔는 표제가 『韓使手口錄 全』으로 되어 있고, 원래 소장처는 ‘昌平坂學問所’이며, 한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이되 筆寫記가 전혀 없어 필사자와 필사 시기를 알 수 없다. ㉕는 표제가 『韓使手口錄 全』으로 되어 있고, 원래의 소장처는 ‘내무성’이다. ㉖·㉗와 달리 서문의 표제 아래 ‘關東學士 人見節宜卿 錄’이라 적어 이름이 ‘節’, 자가 ‘宜卿’인 人見友元의 기록이라는 사실과 함께, 끝에 ‘共四冊藏 足利學校’라 적어 足利學校에 소장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 책의 맨 뒤에는 ‘明治十三年九月十三日 田中保之校’라 적어 明治 13년(1880)년 9월 13일에 田中保之가 교정하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㉕는 1666년 人見友元이 독도로 渡海한 일본 표류민 관련 내용을 기록한 『添長日錄』과 江戸城 내에 있던 紅葉山書庫를 방문한 내력을 담은 『紅葉山御書庫日錄』도 『韓使手口錄』의 뒤에 함께 묶어 수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 텍스트로 삼은 ㉔는 한 사람의 글씨체로 일관성 있게 筆寫되고, 書名의 성격에 맞게 다른 기록 없이 오직 『韓使手口錄』만 수록하고 있다. 게다가 人見友元이 막부 儒官임을 고려할 때 원래의 소장처도 江戸幕府 직할의 敎學시설인 ‘昌平坂學問所’인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韓使手口錄』은 18.2×28cm 크기의 1책으로 1682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의 기록을 담되, 다른 이본들과 마찬가지로 9월 3일과 4일의 기록이 빠져 있다. 홍우재의 『동사록』에 의하면 9월 3일에는 당상역관 3명이 평복을 입고 대마도 奉行倭 平成勝과 함께 4곳의 중실 집안을 찾아 예물을 전했다. 그리고 9월 4일에는 대마도주의 사위 1인·館伴 2인·中路問安使 1인·大名 9인에게 바칠 예물을 裁判倭를 시켜 전한 것으로 나타난다.¹⁴⁾ 하지만 이는 홍우재가 당시 실무를 맡은 당상역관의 신분

14) 홍우재, 『동사록』, 1682년 9월 3일, “三堂以平服 與平成勝 馬島奉行 偕往四宗室家 傳給私禮單.”; 9월 4일, “島主婿一人 館伴兩人 中路問安使一人 諸大名九人處

이기에 예물 준비로 바빴겠지만, 人見友元의 필담창화 상대역으로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기에 2일 간의 기록 누락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실마리는 9월 2일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당일 人見友元은 오전에 본궐사에 들렀다가 오후에는 대마도주와의 약속으로 願行寺로 가서 흥세태가 酒井忠雄·任公定을 상대로 필담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런데 날이 저물자 酒井忠雄이 다음에 필목을 다루는 이가 오면 다시와 가르침을 받겠다고 한 뒤에 바로 ‘織部(堀田正虎)와 兵部(堀田正高) 그리고 내가 願行寺에 이르니¹⁵⁾’라고 하여 다시 원행사에 모인 것으로 적고 있다. 따라서 이때가 3일 또는 4일의 기록으로 볼 수 있지만, 人見友元이 날짜를 빠뜨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韓使手口錄』은 일기체 필담집이지만 날씨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대신, ‘早朝’·‘午前’·‘近午’·‘午後’·‘夜’ 등 시간 및 모임 장소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¹⁶⁾ 특히 일기체 필담집이지만, 일기 속에 수창시도 수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창시는 필담창화의 상황을 보다 현장감 있게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기에서 기술한 내용을 보충하고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인명의 처리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된 모습이 발견된다. 곧 종사관 소속의 화원 함제건을 8월 26일의 기록에는 ‘咸悌健’으로, 9월 5일의 기록에는 ‘咸東巖’으로 호를 적거나, 房州領州 酒井忠國을 ‘忠國’(이름)·‘大和守’(관직)·‘靜守齋’(호) 등으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所贈私禮物 使裁判傳給”.

15) 人見友元, 『韓使手口錄』, 1682년 9월 2일(이하 ‘『韓使手口錄』, 9/2’로 약칭함), “織部兵部及余 到願行寺”.

16) 人見友元과 거의 동선이 같았던 제자 任公定の 『任處士筆語』는 맨 끝에 ‘右七十件’이라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 별다른 제목 없이 항목 단위로 기술되어 있고, 京都와 江戶에서의 필담을 모아 엮은 『朝鮮人筆談并贈答詩』도 필담이 이루어진 날짜만 서두에 적어두고 있어 일기 형식으로 보기 힘들다.

4. 『韓使手口錄』의 내용상 특징

1) 새로운 문화교류 주체의 등장

『韓使手口錄』에는 통신사가 江戶에 머무는 동안 펼쳐진 양국 문화교류의 양상이 잘 반영되어 있는데, 양국에서 참여한 문화교류의 주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조선	일본
尹趾完(正使), 李彥綱(副使), 朴慶後(從事官), 成琬(製述官), 李聃齡(書記), 洪世泰(子弟軍官), 朴再興(首譯), 金松溪·尹就五(軍官), 安慎徽(上通事), 鄭斗俊(良醫), 李三錫·李華立(寫字官), 咸悌健(畫員), 尹萬碩·金夢述(典樂), 鄭泰碩·邢時廷(裨將), 金重千(正使小童), 裴鳳章(副使小童), 朴成益(從事小童)	古河羽林(元老), 林鳳岡·人見友元·木下順菴·林春益·林橫·坂井伯元·伊庭春貞·南春庵·和堅(幕府 儒官), 內藤義概·小笠原長胤(館伴). 堀田正昭(織部), 堀田俊兼(兵部), 堀田正虎·堀田正高(大名), 酒井忠國(房州領主 大和守), 秋元喬朝(郡內城主 攝津守), 水野忠春(岡崎城主), 大久保忠增(安藝守), 酒井忠雄(權佐), 大野清介(元老 家臣), 狩野常信·狩野安信(御用畫家), 狛庸(國史館 官員), 任公定·任春宗(儒士), 大久保帶刀(小田原藩 藩主)·岡井碧庵(讚岐藩士), 人見元龜(人見友元 長男), 人見友雪(人見友元次男), 人見元浩(人見友元 조카)

위의 도표는 다양한 직분의 인물들이 통신사의 江戶 방문을 계기로 서로 활발하게 교류활동을 펼쳤음을 보여준다.¹⁷⁾ 일본 전역에 산재한 필담창화의 기록을 모아 출간하여 필담창화집의 전형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 『和韓唱酬集』¹⁸⁾조차 이에 미치지 못한다. 곧 같은 사행 때 이루어진 필담창화집이지만, 『화한창수집』에는 조선 측(이언강·박경후·성완·이담령·홍세태) 5명, 일본 측(祖辰·林鳳岡·林春宗·南春庵·

17) 한태문, 『1682년 통신사 필담창화집 『화한창수집』에 반영된 한일문화교류 연구』, 『한국민족문화』 7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1, 83쪽.

18) 구지현, 『和韓唱酬集 首』, 보고사, 2013, 15쪽.

坂井漸軒·人見友元·山田原欽·木下順庵·板坂爲篤·柳川震澤·小山朝三) 11명 등 총 16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韓使手口錄』에는 일본인과의 필담창화가 주임무인 제술관 외에 이전의 사행록이나 필담집에서는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았던 필담창화의 새로운 주체가 등장한다. 바로 ‘小童’이다.

잠시 후 喬朝·忠國·正昭·俊兼·忠雄과 내가 중당의 남쪽 사랑에 이르렀는데, 정사 시동 김중천이 지나가고 있었다. 여러 손님이 그 아이와 부사 소동 배봉장(나이 12세) 등을 불러 함께 필담을 나누었다. 또 박성익(나이 16세)이라는 한 동자가 있었는데, 태수의 아들이라 한다. 모든 동자가 문자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 손님이 부채에 붙이는 흰 종이를 꺼내어 쓰게 하였다.¹⁹⁾

정사 소동 김중천, 부사 소동 배봉장(12세), 종사관 소동 박성익(16세) 등이 攝津守 秋元喬朝 등 일본인 5명의 요청에 응해 필담은 물론 창화도 한 것으로 나타난다. ‘陪小童’·‘小童子’라고도 부르는 소동과 일본인과의 교류는 이후에도 시공간을 가리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곧 이틀 뒤인 8월 26일에는 대마도주의 숙소인 願行寺에서 박성익과 배봉장이 總州(堀田正俊)·兵部(堀田正高)·權座(酒井忠雄) 등과, 9월 9일에는 對馬藩 京邸에서 元老(古河羽林)·和州太守(酒井忠雄)와 필담을 나누었다. 이는 이제껏 통신사 사행록과 필담창화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다. 소동은 사행에서 소통사·사령 등과 함께 ‘中官’으로 분류된 12세~17세 내외의 소년으로²⁰⁾, 대체로 세 사신을 모시며 잡다한 사무 처리와 함께 이

19) 『韓使手口錄』, 8/24, “少焉 喬朝忠國正昭俊兼忠雄及余 到中堂之南廂 有正使侍童 金重千之過 衆客呼其童及副使小童裴鳳章年十二等 共筆語 又有一童子曰朴成益年十六 謂是太守之子也 諸童皆知文字 衆客出扇紙書之”.

20) 물론 계미통신사(1763)에 참여하여 大阪의 竹林寺에서 병사한 소동 金漢重의 경우 결혼하여 두 아들까지 둔 22세의 아버지로 나타난다. (사)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엮음, 『조선통신사 옛길을 따라서2』, 한울, 2008, 42-44쪽.

따금 사행을 위로하기 위해 歌舞도 펼치는 존재로만 여겨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韓使手口錄』에서는 종사관 소동 박성익을 ‘태수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다. 박성익은 자가 明淑, 호가 竹軒으로 人見友元의 제자 任公定이 기록한 『任處士筆語』에는 그가 任公定에게 5언 절구 3수가 적힌 唐詩 초서를 선물한 것으로도 나온다. 또 시도 배웠고 논어도 읽은 것으로 나오는 김해 출신 배봉장은 부사의 소동으로 任公定이 소동 가운데 가장 기특하다고 평가한 인물이다. 그는 시도 배웠고 논어도 읽은 데다, 종사관을 수행한 관리이자 친척 형인 梅谷과 함께 사행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²¹⁾

이를 통해 통신사 소동조차 대체로 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물이 선발되었고,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은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 자기 아들을 ‘소동’의 신분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사행에 참여시켰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 결과 소동들은 도일 후 자신의 소임 외에 일본인을 상대로 한 문화교류의 일선에도 나설 수 있었다. 이는 에도시대 중기의 화가 英一蝶이 신묘통신사(1711) 때 소동이 말 위에서 일본 승려에게 글을 써주고 있는 모습을 그린 <朝鮮通信使小童圖>²²⁾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그림은 소동의 필담창화 능력 및 당시 일본인들이 소동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된다.

2) 문화교류 현장의 생생한 묘사

통신사를 통한 양국의 문화교류는 오늘날 양국에 전하는 ‘사행록’·‘필

21) 任公定, 『任處士筆語』, “朴竹軒袖三葉之草書 授我”; “此童最奇之”. 김지남의 『東槎日錄』, 『東槎錄序』, <元額總數四百七十三人>에 배봉장 외에 ‘배’씨 성을 가진 인명이 보이지 않기에 ‘梅谷’이란 호를 쓰는 외가 형을 따라온 것으로 보이고, 박성익도 ‘종사관 소동’이 아니라 ‘從事官 廳直’으로 나온다.

22) <朝鮮通信使小童圖>는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 가운데 일본 측 ‘여정의 기록’(J.Ⅱ-25)으로 목록에 올라와 있으며, 일본 大阪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담창화집'·'서화'·'편액' 등 각종 기록물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행록이나 필담창화집은 주변 상황에 대한 소개 보다 대체로 양국의 교류 사실만 기록하고 있기에 전체적인 상황을 가늠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韓使手口錄』에는 항목 중심의 필담창화집에서는 볼 수 없는 人見友元의 꼼꼼하고 성실한 기록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그 결과 기존의 텍스트나 연구에서 살필 수 없었던 문화교류의 현상이 생생하게 묘사될 수 있었다.

(가) 밤이 깊은 후에 대마도주와 두 장로가 와서 세 사신을 뵈었다.²³⁾

(나) 宗대마수의 숙소(원행사)에 도착했다. 조선 비장 홍세태(창랑), 판사 안신휘(신재), 군관 윤취지(죽당), 사자관 이삼석과 이화립, 화사 함제건, 전악 김만술·윤만석, 동자 박성익·배봉장이 숙소에 와 있었다.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자, 안신휘·윤취지·이삼석·이화립에게 편액과 병풍에 글을 쓰게 하고 함제건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다. 大和守와 창랑이 남쪽 사랑에서 필담을 나누었다. (중략) 밤 2경이 되려하자 대마태수가 나와 손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조선의 손님들도 외당에 와서 술과 밥을 먹었다. 자리에 있는 손님들의 식사가 끝나자 전악 김만술·윤만석을 이끌어 남쪽 사랑에 가서 좌정하였다. 만술이 통소를 불고, 만석이 거문고를 타거나 해금을 켜기도 했다. 판사 안신휘가 노래를 부르자 동자 성익과 봉장 역시 노래 몇 곡을 불렀다. 이 사이 나는 오언절구를 지어 창랑에게 보이자 창랑은 화답시를 지어주었다. 總州·兵部·權佐가 모두 장난삼아 성익·봉장과 필담을 나누었다.²⁴⁾

위의 글(가)와 (나)는 모두 통신사가 江戶에 머물고 있던 8월 26일자의

23) 홍우재, 『동사록』 1682년 8월 26일, “夜深後 島主與兩老來接三使”.

24) 『韓使手口錄』, 8/26, “到宗對馬守之宿願行寺 朝鮮裨將洪世泰滄浪 判事安愼愼 齋 軍官尹就之竹堂 寫字官李三錫李華立 畫師咸悌健 典樂金蔓述尹萬碩 童子朴成益裴鳳章 來在宿館 衆客食畢 使愼愼就之三錫華立 扁額屏風 使悌健作華…夜將二更 對馬太守出而供膳於座客 朝鮮之衆客 亦到外堂酒食矣 座客食罷 而引典樂金蔓述尹萬碩於南廂坐定 蔓述吹笛 萬碩彈琴 或奏奚琴 判事安愼愼唱歌 童子成益鳳章 亦歌數曲而畢 此間余作五言小絕示滄浪 滄浪和之”.

기록으로, 글(가)는 종사관 수역으로 참여한 홍우재의 일기체 사행록 『東槎錄』이고, 글(나)는 『韓使手口錄』의 기록이다. 같은 8월 26일의 일기이지만, 『동사록』은 늦은 밤 통신사 숙소인 本誓寺를 찾아온 일본의 접대관에 초점을 맞추어 日誌에 가까운 사실 중심의 건조한 서술을 하고 있다. 이는 홍우재가 종사관 首譯으로 사실상 사행의 최고실무자인 까닭에 실무 수행하느라 문화교류의 현장을 찬찬히 살필 여유가 없었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비해 『韓使手口錄』은 마치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대마도주의 숙소인 願行寺에서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 이루어진 양국 문화교류의 현장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전반부에는 남쪽 행랑에서 大和守 酒井忠國과 통신사 자제군관 홍세태(창랑)가 필담을 나누는 사이, 다른 한쪽에선 일본인을 상대로 상통사 안신휘, 부사 군관 윤취오²⁵⁾, 사자관 이삼석·이화립이 편액과 병풍에 글을 쓰고, 화원 합제건이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늦은 밤 술이 곁들여진 식사를 마친 뒤 통신사 악공 김만술과 윤만석이 일본인을 상대로 통소·거문고·해금을 연주하고, 상통사 안신휘와 소동 박성익·배봉장이 노래를 부른다. 그 사이 한쪽에선 人見友元과 홍세태가 시를 창화하고, 總州(堀田正俊)를 비롯한 일본인과 소동들이 필담을 나눈다. 그야말로 통신사를 매개로 거대한 문화교류의 장이 펼쳐진 사실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人見友元은 통신사에 대한 접대가 주임무인 데다, 일본 측 인사들을 통신사 사행원과 연결시키는 역할도 수행했다. 따라서 양국 문화교류의 현장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당사자인 만큼 그 내용도 『동사록』에 비해 더욱 구체적이고 풍성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로 보인다.

한편, 『韓使手口錄』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필담의 방식에 대한 정보도 알려준다.

25) 『韓使手口錄』에는 ‘尹就之’로 나오지만, 김지남의 『東槎日錄』, 『東槎錄序』, 『元額總數四百七十三人』에는 副正을 역임한 부사 소속의 군관 ‘尹就五’로 나온다.

堀田總州太守, 酒井和州太守, 堀田兵部, 酒井權佐가 각각 홍창랑과 앉아 필담을 나누고 있었고, 임처사가 붓을 잡고 있었다.²⁶⁾

9월 5일 황혼녘에 홍세태가 堀田正俊·酒井忠國·堀田俊兼·酒井忠雄 등과 대마도주의 숙소인 願行寺에서 필담을 나누는 모습이다. 특이한 점은 홍세태를 상대로 필담을 하면서 정작 붓을 잡은 일본인은 人見友元の 제자 任公貞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필담을 통한 교류라 해도 일본인의 경우 모두가 붓을 들고 문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상 또는 연령상 아래에 있는 사람 한 명이 대표로 붓을 쥐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문답 내용을 대필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는 『尾張名所圖繪』 속 <諸學士性高院の書院に朝鮮人と詩文贈答の圖>²⁷⁾에 등장하는 10명의 일본인 가운데 1명만 붓과 종이를 펼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人見友元과 홍세태의 진솔한 交遊

『韓使手口錄』에 반영된 人見友元과 통신사 사행원의 만남은 통신사가 최종 목적지인 江戸 本誓寺에 숙박한 이틀 후인 8월 23일부터 귀국 하루 전인 9월 11일까지 이어진다. 그 가운데 人見友元이 가장 자주 만나 필담창화를 한 통신사 사행원은 홍세태로, 그를 상대로 한 둘만의 필담창화는 8월 24·25·26일, 9월 2·9~11일에 이루어졌다. 필담창화가 빠진 경우는 ①만났지만 바빠서(8/23, 9/1·6·7일), ②국서전달과 같은 공식 행사로(8/27·28일), ③만나기 위해 갔지만 다른 곳으로 가서(8/29, 9/8) 등으로 나타난다.

홍세태는 자가 道長, 호 滄浪·柳下로 23세에 을묘식년시(1675) 잡과에 응시하여 漢學官으로 뽑혔다. 그는 부사 이언강과 동문수학한 친구라

26) 『韓使手口錄』, 9/5, “堀田總州太守 酒井和州太守 堀田兵部 酒井權佐各在座 與洪滄浪筆語 任處士執毫”.

27) 신기수, 『新版 朝鮮通信使往來』, 明石書店, 2002, 88쪽의 그림 참조.

는 인연으로 부사의 자제군관 자격으로 사행에 참여하였다. 漢學 전공인 그의 사행 참여는 다분히 당대의 명사들로부터 ‘高適이나 岑參과 같은 무리’·‘입만 열면 글이 되는 사람’이란 평가에 걸맞은 탁월한 시문창화 능력 때문이었다. 이는 같은 사행에 참여하여 『東槎日錄』을 남긴 김지남도 일본인이 시를 요청하면 자신의 재주를 과신하지 않고 반드시 홍세태에게 부탁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²⁸⁾

내가 창랑에게 물었다. “죽하는 나이가 얼마인가요?” “서른입니다. 죽하는 몇입니까?” “마흔여섯입니다. 죽하는 고향이 어디입니까? 과거에 급제하셨습니까?”²⁹⁾

8월 24일 오후 本誓寺에서 만난 두 사람의 첫 대화는 서로의 나이를 묻는 데서 시작된다. 이후 人見友元은 홍세태의 고향, 과거 급제 여부, 직책, 부사 이언강의 고향, 홍세태의 행장 속에 어떤 책이 있는지, 성균관의 釋奠 시행 여부, 갖의 이름, 거문고를 연주하는 악공이 있는지, 일본인을 상대로 한 수창이 힘들지 않은지, 성균관의 생원이 성리학만 배우는지, 생원과 진사를 겸하는 경우도 있는지, 홍세태의 印章 소지 여부 등을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홍세태와 人見友元은 시도 주고받았다. 작품은 수록하지 않았지만, 8월 25일에는 홍세태가 사행 노정 중 箱根 橘原에서 쓴 시에 人見友元이 차운한 <和洪滄浪箱根橘原道中詩>를 任公定을 통해 本誓寺로 보냈다. 26일에는 人見友元이 오연절구를 지어 홍세태에게 보이자 홍세태가 화답시를 지은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9월 2일 원로의 가신인 大野清介가 시를 요청하자 홍세태가 증여한 시에 人見友元이 바로 차운한 시가 수

28) 정래교, 『柳下集』, 『附錄』, <墓誌銘>, “息庵金相公 見而歎賞曰 高岑者流也…農巖三淵二先生與之唱酬 傾倒推獎曰 君可謂矢口成章者矣.”; 김지남, 『東槎日錄』, 1682년 8월 21일, “余於詩尤味味焉 愧心之發 無以爲辭 必委於洪道長成伯圭”.

29) 『韓使手口錄』, 8/24, “余問滄浪曰 足下年幾何 答曰三十 足下歲幾乎 余曰四十六 足下所生何處乎 既登高科乎”.

록되어 있기도 하다.

(대) 하늘 위의 參星과 商星처럼 떨어져 있었지만 / 마음으로 사귀어
함없어 늙어도 새로워라 / 국화꽃이 오히려 석 잔 술을 권하니 / 한 번
헤어지면 구름 밖 만 리 사람인 까닭 天上還看參與辰 心交如舊白頭新
黃花猶勸三盃酒 一別雲霞萬里人

(대) 창랑이 말했다. “우리들이 만난 것은 참으로 하늘이 시킨 것입니
다. 새로운 지기를 알게 된 즐거움이 흠족하기도 전에 갑자기 일생의 이
별을 하게 되었으니 그 슬픔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말했다. “말씀하
신 대로입니다. 천 리 길 한 번 헤어지면 참으로 재회란 없겠지요. 그러
나 다음에 통신사가 올 때 그대가 정사가 되어 올지 또한 알 수 없는 것
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큰 기쁨을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³⁰⁾

글(대)는 중앙절을 맞아 홍세태가 明發·靜修 등 일본인에게 바친 칠언
절구에 人見友元이 대신 차운한 것이다. 이는 어쩌면 홍세태가 9월 2일
本誓寺에서 만난 人見友元에게 “매번 만날 때마다 말하지 않아도 저절
로 뜻이 통한다.”³¹⁾ 자신의 진심을 고백한 것에 대한 화답시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원래는 동쪽과 서쪽에 각각 떨어져 있어 만날 수 없는 參
星과 商星의 신세였다가 사행을 통해 만나 마음으로 사귀어 늘 새로웠
는데, 곧 헤어지게 되니 국화술을 권할 수밖에 없다며 이별을 슬퍼하고
있다.

글(대)는 귀국을 하루 앞둔 9월 11일 오후, 本誓寺를 찾은 人見友元이
홍세태와 나눈 필담의 내용이다. 중국으로 파견된 燕行使와 달리 통신사
의 파견은 정례적이 아니었기에 아무리 이국땅에서 찾은 知己일지라도
한 번 헤어지면 재회를 기약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홍세태가 이별

30) 『韓使手口錄』, 9/11, “滄浪 吾儕相逢 天實爲之 新知之樂未洽 遽作一生之別 何其
悲哉 余曰 所喻者然矣 千里一別 眞無再會 然佗後有信使之來 則足下爲正使而來
亦不可知之 若然則大歡可勝言乎”.

31) 『韓使手口錄』, 9/2, “滄浪書示余曰 僕每對足下 不語而意自通矣”.

을 슬퍼하자 조선의 신분제를 알 리 없는 人見友元은 흥세태가 다음번 통신사 정사가 되어 다시 만나면 더욱 기쁠 것이 아니겠느냐며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다.

비록 『韓使手口錄』은 귀국일인 9월 12일에서 끝나지만, 둘의 관계는 이후에도 시문을 통해 이어진다. 귀로에 韜浦에 들른 흥세태는 人見友元이 자신의 독서당에 대한 記를 지어줄 것을 요청한 부탁을 잊지 않고 <吾伊庵記>를 지어 전달한다.³²⁾ 또, 귀국한 뒤 약 30년이 지나 벗 李磻이 제술관으로 신묘통신사(1711)에 참여하자, 그를 통해 <寄日本野鶴山> 칠언절구 3수와 함께 장년 때의 모습을 처자에게 보여주고 싶으니, 자신의 초상화가 남아 있으면 보내 달라는 내용의 편지(『奉日本國野鶴山書』)를 보낸다.³³⁾ 하지만, 人見友元은 이미 10년 전에 죽어 아들 桃源이 대신 흥세태에게 초상화와 함께 회신(『復朝鮮國滄浪洪老先生書』)을 보내게 된다. 이 일화는 양국 문인의 진솔한 사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미담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松田 甲은 일제강점기의 일본 학자답게 이를 ‘內鮮隆化의 모범이 될 만한 미담’으로 거론하기도 했다.³⁴⁾

4) 문화교류의 구체적 양상 반영

(1) 필담과 창화

한시를 서로 주고받는 ‘唱和’와 글을 써서 서로의 관심사를 묻고 답하는 ‘筆談’은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異國 문사들에게 있어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기도 한 대표적인 담화양식이다. 외교사행에서 필담과 창화는 대체로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에 ‘필담창화’라고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韓使手口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2) 장진엽, 『흥세태의 사행문학 연구』, 연세대 국문과 석사학위, 2012, 4-8쪽.

33) 흥세태, 『柳下集』, 권9, 文, 書, <與日本野鶴山書>. <寄日本野鶴山>은 권5, 『시』에 수록되어 있다.

34) 松田 甲, 『人見鶴山と洪世泰』, 『日鮮史話』 제1편, 조선총독부, 1931, 101-102쪽.

처음에 本誓寺에 도착했을 때, 조선 진사 성완, 진사 이담령, 비장 홍세태 세 사람이 중당에 와서 整宇와 만나 먼저 필담을 나눈 다음, 整宇·鷄峯·春庵·伯立 등과 각각 시를 주고받았다. 翠虛가 손님들에게 시를 주고 鵬溟도 整宇와 내게 주었다. 함께 창수한 것이 매우 많았는데, 나 또한 붕명과 화답하였다.³⁵⁾

8월 23일, 통신사의 객관인 本誓寺를 방문한 人見友元이 처음으로 통신사 사행원과 만난 광경을 그리고 있다. 간단한 필담 뒤에 사행원 가운데 성완(제술관)·이담령(종사관 서기)·홍세태(부사 자제군관) 등과 整宇(林鳳岡)·鷄峯(林春宗)·春庵(南春庵)·伯立(坂井漸軒) 등 일본 문사의 창수가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정작 『韓使手口錄』에는 필담집의 특성을 반영하는 듯, 양국 문사 사이에 오간 창화시 원문은 그리 많이 수록되어 있지는 않다.

일시	장 소	작 가	증여대상	형식
8.24	本誓寺	酒井忠國	洪世泰	5언절구
		洪世泰	酒井忠國	
8.26		李彦綱	人見友元	
		人見友元	李彦綱	
9.2		洪世泰	大野清介	
		人見友元	洪世泰	
9.9	對馬藩 京邸	洪世泰	明發·酒井忠國	7언절구
		人見友元	洪世泰	

위의 도표는 통신사 사행원과 일본 측 인사들이 통신사의 숙소인 本誓寺와 對馬藩의 京邸에서 총 4차례의 만남을 가졌고, 그 사이 5언절구 6수와 7언절구 2수 등 총 8수가 수창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酒井忠國-홍세태, 이언강-人見友元처럼 상호 창수가 이루어진 8월 23·26일과는

35) 『韓使手口錄』 8/23, “初至本誓寺 朝鮮進士成琬進士李聃齡裨將洪世泰三人 來于中堂 相會整宇 先筆語而後 整宇鷄峯春庵伯立等 各以詩相唱酬 翠虛呈諸客 鵬溟亦呈整宇及予 相與唱酬多多 予亦和鵬溟”.

달리, 9월 2·9일의 경우 일본 측 증여대상자가 창수한 것이 아니라 모두 人見友元이 대신 창수하고 있다. 일본 측 인사들의 응대가 늦자 人見友元이 대신 나선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韓使手口錄』에는 원문은 수록하지 않았지만, 시문을 짓거나 贈與했다는 기록은 수없이 발견된다. 시문의 증여만 살펴보면 人見友元이 江戸의 西山에서 은거하는 蒙山人의 시를 꺼내 보이며 화답을 청하자 성완과 홍세태가 화답시를 지어주고, 狩野常信이 동생 野篤을 위해 시를 청하자 이담령이 지어주었으며, 원로 古河羽林이 자신의 후원에 있는 ‘復靜軒’을 소재로 시를 청하자 ‘復靜’ 큰 글자 아래 오언절구를 써 준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韓使手口錄』에는 필담집의 성격상 시문 창화보다 필담을 통한 교류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난다. 필담은 화제가 특정 분야에 국한됨이 없이 두루 펼쳐질 수 있기에 생소한 이국문화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요긴한 역할을 했다. 실제로 오늘날 전하는 사행록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일본 정보는 통신사 사행원이 일본 문사들과의 필담을 통해 확보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일본 문사들은 먼저 조선 문사의 이름과 호, 나이와 관직, 과거 급제 때의 試題, 자녀 관계, 여행 짐 속에 들어 있는 책의 종류와 같은 극히 사소한 개인사에서부터 필담을 시작한다. 이후 조선과 중국 악기 제도의 비교, 조선이 숭앙하는 書法, 조선의 갓을 비롯한 衣冠의 제도, 성균관의 제도와 인원수, 조선의 성씨, 軍禮, 3年喪의 거행 여부, 동성불혼을 비롯한 양자들이기 풍속, 본디 부모가 죽었을 때 양자의 服喪, 龜卜의 존재 여부 등을 물었다.

물론 가장 질문이 많았던 것은 조선의 주자학 존숭에 대한 비판과 유교 경전에 등장하는 문구에 대한 해석과 관련한 것이었다. 酒井忠雄을 비롯한 일본 문사들은 四書六藝의 글이 주자학자의 잘못된 설명과 번잡한 해석 탓에 본디 뜻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한다. 나아가 조선이 주문공

을 높이면서 노장은 배척하는지, 사람의 기질이 학문에 따라 변하는지, 충의가 드러나기 어려운 이유 등에 관해서 물었다. 이언강·성완·이담령·홍세태 등 사행원들은 일본 측의 주자학 비판에 대한 경계심을 지니고 한결같이 적극 옹호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반면 조선 문사들의 질문은 부사 이언강이 일본의 儒官의 수를 묻거나, 조선의 ‘馬上才’를 본 소감을 일본 문사에게 묻는 정도에 그친다. 다만 大和守인 酒井忠國과 안신휘·홍세태의 필담에서는 직전 사행에서 비롯된 富士山-금강산 우열논쟁처럼 양국의 名山에 대한 소감을 교환하기도 한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일본 문사들의 질문이 많은 것은 『韓使手口錄』이 일본 문사의 기록으로, 주된 관심이 조선에 있었기 때문에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 서화와 음악

서화는 문사들이 중심이 된 ‘사행록’과 ‘필담창화집’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통신사행에서 필담과 창화 이상으로 양국의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된 분야이다. 그것은 서화를 즐기는 일본인의 嗜好에다, ‘서화에 뛰어난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막부 측의 희망, 그리고 서화교류를 주로 전담했던 寫字官·畫員의 탁월한 능력에서 비롯된다.³⁶⁾ 특히 그 가운데 글씨는 한글로 써준 것조차 소원성취의 부적으로 여기는 일본인의 요청으로 사자관만이 아니라 사신을 비롯하여 格軍과 소동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참여한 문화교류의 대표적인 예가 되었다.

(바) 오후에 내가 本誓寺에 도착하니 水野忠春, 館伴인 左京兆 內藤義概, 大介 小笠原長胤이 중당에 있고, 조선판사 안신휘와 사자관 이삼석·이화립, 화사 함제건이 큰 글자를 대신 쓰거나 수묵화를 그리고 있었다.³⁷⁾

36) 한태문, 『통신사 왕래를 통한 한일 문화교류』, 『한국문학논총』 41집, 한국문화회, 2005, 218쪽.

(배) 화사 永眞도 자제들을 데리고 왔다. 그 자제에게 그림을 그리라 하여 죽당에게 주었다. 죽당은 기뻐하며 또 몇 장의 글씨를 썼다.³⁸⁾

글(배)는 8월 24일, 글(배)는 9월 8일의 기록으로, 모두 통신사의 숙소인 本誓寺에서 이루어진 양국 서화교류의 모습이다. 글(배)에서는 통신사의 관사(상통사)·사자관 등이 편역용 큰 글씨를 쓰고, 화원이 수묵화를 그리고 있다. 또한 글(배)에서는 狩野派의 최고 수장인 永眞(狩野安信)이 자제들에게 그림을 그려 부사 군관 죽당(윤취오)에게 바치게 하고, 이에 죽당이 기뻐하며 답례로 글씨를 써 준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밖에 8월 24일에는 人見友元이 사자관 이삼석에게 조선에서 숭양하는 書法을 묻자 이삼석이 王羲之·趙孟頫·米芾·懷素 등이라고 대답하였다. 또 홍세태는 紀正昭·紀俊兼에게 ‘충효’라는 글자를 써 준 뒤 그들로부터 어머니께 드리라며 향합과 함께 일본 화공이 그린 그림 3폭을 선물로 받기도 한다. 9월 1일에는 성완이 그림을 청해 狩野常信이 매화·난초·버드나무·제비·남극성을 그렸고, 성완은 그에게 절구 4수로 답례하였다. 9월 2일에는 狩野常信이 홍세태에게 <寒江獨釣圖>와 <李白觀瀑圖> 등의 그림을 바치기도 했는데, 특히 『韓使手口錄』에는 일본 화가의 그림에 조선 문사가 ‘贊’을 써주는 형태의 교류가 빈번하게 드러난다. 곧 9월 2일에 人見友元이 狩野常信의 <陳希夷睡圖>에다 贊을 써 줄 것을 요청해 홍세태가 응했고, 總州太守 堀田正昭의 <潘閨之圖>에 성완이 贊을 써 준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韓使手口錄』에는 음악을 통한 양국의 교류 상황도 잘 반영되어 있다. 대체로 통신사행에는 典樂 2명·吹手 18명·銅鼓手 6명·大鼓手 3

37) 『韓使手口錄』, 8/24, “午後余到本誓寺 水野忠春及館伴內藤左京兆義介 小笠原大介長胤 在中堂 朝鮮判事安愼徽 及寫字官李三錫李華立畫師咸悌健 或代書大字 或作水墨圖”.

38) 『韓使手口錄』, 9/8, “畫師永眞亦帥其子弟來 命其子弟作畫 授於竹堂 竹堂喜又作數紙之字”.

명·細樂手 3명·錚手 3명·風樂手 18명 등 음악과 관련된 5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한다.³⁹⁾ 이들의 주된 임무는 기나긴 사행 노정에서 사행원의 객고를 달래거나, 일본인을 상대로 한 공연활동이었다. 『韓使手口錄』은 이들의 활약이 사행의 최종 목적지인 江戶에서도 활발하게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음악과 관련한 첫 교류의 모습은 앞서 밝혔듯이 8월 24일, 人見友元이 홍세태에게 통신사에 거문고를 연주하는 악공이 있는지, 그리고 중국의 거문고와 만듬새가 같은지를 물은 데서 비롯된다. 이에 홍세태는 연주하는 악공이 있으며, 만듬새가 중국과 다르다고 대답한다. 이에 人見友元은 일본에는 귀화한 西湖 출신의 중국 승려 心越이 거문고 연주를 잘하며, 훗날 그가 지은 <熙春操>를 들려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화를 마무리한다.

8월 26일에는 홍세태가 준비한 듯, 방문한 人見友元을 위해 악공과 裨將이 <霓裳羽衣曲>에 맞추어 거문고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다. 이때 人見友元은 일본에 전하는 高麗樂의 목록을 꺼내어 악공에게 악곡명을 묻지만 모른다는 대답을 듣자, 성완과 홍세태에게도 목록을 건넨다.

내가 고려악의 목록을 꺼내 창랑과 취허에게 보이며 말했다. “이 악곡은 옛날 귀국에서 전래한 것으로 곡조와 춤사위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전하고 있습니다만, 곡명의 뜻을 알기 어렵고, 춤사위도 살피기가 어렵습니다. 귀국엔 지금 이 곡이 있나요?” 두 사람이 읽은 뒤 모르겠다고 말했다.⁴⁰⁾

高麗樂이지만 정작 조선의 악공은 물론 식견이 있는 홍세태와 성완조차 악곡명을 알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성완이 목

39) 김건서, 『增訂交隣志』, 권5, 『通信使行』

40) 『韓使手口錄』, 8/25, “余出高麗樂目錄 示滄浪翠虛曰 此樂曲昔自貴國來 其曲調舞容 至今弊邦傳之 然其名意難知 舞容難察 貴國今有此曲耶 二人讀之曰 不知之”.

록 중 <新靺鞨>⁴¹⁾은 말같이 낙타 100필을 송도에 들여오던 날 왕건이 악공에게 명해 만든 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어 人見友元이 백결의 <確樂>이 현존하는지를 묻고 성완이 있다고 대답하자, 人見友元은 다시 小山朝三에게 사행원 중 다른 악곡을 아는 이가 있을지 모르니 반드시 기록할 것을 지시하기도 한다.⁴²⁾

그런데, 이 필담은 신묘통신사(1711) 때 궁중 공식연회에서 12곡의 악곡 공연이 베풀어졌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대등·간소화를 골자로 통신사 빙례개정을 주도한 新井白石이 이전 사행까지 營中舞樂으로 공연되던 ‘猿樂’을 고쳐 ‘雅樂’ 반주의 舞樂을 사용하면서⁴³⁾ 그 속에 <長保樂> 등 고려악 5곡을 공연했기 때문이다. 이는 新井白石이 정작 조선에는 남아 있지도, 존재 자체를 아는 사람도 없는 고려악이 일본에 전승되고 있음을 보임으로써 호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으로, 조선에 대한 우월감도 과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연회

『韓使手口錄』에는 양국 연회 교류의 모습도 드러난다.

整字와 나는 필담을 나누려 했지만, 朝三 등이 “조선인이 모두 이 연회를 좋아합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들은 곧 그만두고 각자 앞의 마루에 이르니 원숭이놀음도 하고, 마술을 하기도 하고, 땅재주를 부리기도 하는데, 시끄럽고 비루해 무척 지루하게 보고 있었다. (중략) 나는 꺾속말

41) <新靺鞨>을 대일 외교에 적극적이었던 발해가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자국의 악무를 일본에 전한 것이 ‘渤海樂’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궁중악무 가운데 하나로 정착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박태규, 『발해의 대일 사신 파견과 북카이가쿠(渤海樂)-<신마카(新靺鞨)>를 중심으로』, 『민족무용』 19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세계민족무용연구소, 2015, 164쪽.

42) 『韓使手口錄』, 8/26, “余附高麗樂目於朝三日 此行朝鮮衆客之中 知他樂曲者或有焉 若然則子宜記之”.

43) 羽塚啓明, 『正德觀樂記』, 『東洋音樂研究』 1권 4호, 동양음악연구회, 1937, 40쪽.

로 장난삼아 “朝三이 어떤 이유로 조선의 세 사신이 원숭이 춤을 좋아한다고 말했을까요?”하고 말했더니 整宇와 順庵이 웃었다.⁴⁴⁾

9월 7일 對馬藩 京邸에서 대마도주가 세 사신을 위해 베푸는 잔치가 끝난 후, 통신사 사행원을 위해 일본 측이 베푼 연회, 곧 원숭이놀이·마술·땅재주에 대한 人見友元의 소감을 적고 있다. 그는 整宇(林鳳岡)·木下順庵 등과 함께 성완·홍세태와 필담을 나누고 싶었지만, 대마도의 書僧 小山朝三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연회를 관람할 수밖에 없었다. ‘시끄럽고 비루한 것’이라는 人見友元의 평가와는 달리, 정작 조선의 사행원들은 이 연회에 큰 감동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리에 난 종기 때문에 연회에 참여하지 못한 홍우재가 광대·마술사·원숭이 무리의 재롱이 기이한 구경거리였다는⁴⁵⁾ 참석 동료들의 평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韓使手口錄』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통신사의 연회 활동도 함께 그려내고 있다.

비장 정태석과 형시정이 붉은 비단 전투복을 입고 말을 달리는데, 안장 위에 서기도 하고 물구나무 서기도 하며, 안장을 잡고 땅에 드리우기도 하고, 누워서 하늘을 보며 달리기도 하였다. 달릴 때마다 서로 소리를 지르는데, 웃는 듯도 같고 꾸짖는 듯하였다. 마장 끝에 미쳐서도 멈출 수 없어 작은 언덕 위로 올라서야 말을 멈추었다.”⁴⁶⁾

9월 9일 늦은 오후에 對馬藩 京邸에서 人見友元이 대마도주·元老·

44) 『韓使手口錄』, 9/7, “整宇及余等 猶欲筆語 朝三等曰 朝鮮人皆好此戲 余儕即止 各到前堂 或有猿戲 或有幻戲 或有飛戲 喧囂鄙陋 太懶看之…余耳語戲曰 朝三何言朝鮮三使好猿舞乎 整宇順庵笑之”.

45) 홍우재, 『동사록』, 1682년 9월 7일, “聞諸其儀…以戲子幻術猿猴之徒 挑之千態 可謂奇觀矣”.

46) 『韓使手口錄』, 9/9, “裨將鄭泰碩邢時廷 着紅錦戰服走馬 或立鞍上 或筋斗 或攀鞍 垂地 或仰臥駸駸而馳 每馳相叫 如笑如叱 及場末 不能停之 乘登墩上而停馬”.

總州·大和守·織部·權佐·홍세태 등과 함께 馬場의 정자에 올라 본 ‘마상재’의 공연 장면을 그린 것이다. 마상재는 말 위에서 재주를 부리는 기예 또는 기예를 부리는 사람을 일컫는다. 『무예도보통지』(1790)에 수록된 마상재의 재주는 8가지인데, 『韓使手口錄』에는 그 가운데 走馬立馬上·馬上倒立·右裏藏身·縱臥枕馬尾 등 4가지 공연 종목에 대해 적고 있다. 마상재는 幽玄齋藏의 <馬上才繪卷>, 2대 鳥井清信의 <馬上才圖> 등에서 볼 수 있듯 당시 일본 화가들이 빈번하게 소재로 활용할 정도로 조선을 대표하는 연희로 자리 잡았다. 그것은 마상재의 뛰어난 재능과 함께 일본 馬術의 오랜 역사 및 德川막부의 馬術장려책에 기인한 결과였다.⁴⁷⁾

공연을 본 소감을 묻는 홍세태에게 人見友元은 매우 기이하며, 일본에도 비슷한 기예가 있지만 용도가 조금 다르다고 대답한다. 이어 마상재를 ‘馬戲’라고 부르는지, 말을 달리며 내는 소리가 웃는 것인지 소리치는 것인지, 채찍을 사용하는지, 홍세태도 이렇게 탈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홍세태는 ‘마상재’라 부르고, 포효하는 것은 기를 모으는 소리이며, 채찍을 쓰지 않아도 말이 스스로 달리고, 자신은 무관이 아니지만 말 타고 활을 쏠 수는 있다고 대답한다.

(4) 의학과 서적

통신사행에는 사행원에 대한 치료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典醫監과 惠民署에서 뽑힌 2명의 ‘의원’들이 참여하였다. 그런데, 임술통신사는 일본의 요청으로 의술이 뛰어난 良醫가 추가로 선발되었다. 양의로 사행에 참여한 이는 22세(1660)에 증광시 의과에 장원급제한 뒤 당시 內醫院 正(정3품) 벼슬을 하고 있던 鄭斗俊이었다. 일본의 요청으로 조선을 대표하는 최고의 의술을 지닌 의원 3명이 파견된 만큼 양국의 의학교류는 필연적으로 예견된 것이었다.

47) 한태문, 『통신사 왕래를 통한 한일 연희 교류』, 『지역과 역사』 23호, 부경역사연구소, 2008, 15쪽.

첫 교류는 8월 24일 本誓寺에서 이루어졌다. 人見友元은 필담을 나누던 종사관 서기 이담령의 얼굴빛이 좋지 않자 안부를 물었고, 이담령은 자신의 고질병을 고백하며 일본의 좋은 의사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人見友元은 일본에는 의사가 많기 때문에 하루이틀 사이에 진맥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담령은 기다리겠다고 답하는 것으로 나온다. 약속이 지켜졌다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이후 이담령이 일본인과의 필담창화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일본 의사의 진료를 받은 뒤 차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교류는 9월 2일 오전, 안신휘·성완·함제건 등이 일본의大名 등을 상대로 서화를 증여하던 本誓寺에서 이루어졌다. 양의 정두준은 安藝守 大久保忠增의 요청으로 진맥을 한 뒤 약제도 처방한 것으로 나온다.⁴⁸⁾

『韓使手口錄』에는 서적의 교류도 나타난다. 조선 서적에 대한 人見友元의 관심은 本誓寺에서 홍세태를 만난 8월 24일부터 시작된다. 그는 홍세태의 행장 속에 지닌 책이 무엇인지 물었고, 홍세태는 유종원의 시집 등을 지니고 있다고 대답하지만, 실물을 확인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직접적인 서적의 교류는 9월 2일, 홍세태가 자신은 물론 부사 이언강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빌려주었으면 하는 책 이름을 적어 人見友元에게 전달하는 데서 비롯한다. 서명은 《水滸傳》·《後西遊記》·《玉支機》·《玉嬌梨》·《平山冷燕》·《肉蒲團》·《傳香集》·《夢金苔》·《掀髯談》·《金粉惜》·《催曉夢》·《濟顛全傳》 등이다. 이들 서적은 대부분 명말 청초에 창작된 才子佳人소설·艷情소설·話本소설들로, 이언강과 홍세태는 무료함을 핑계로 조선에서는 구할 수 없는 작품들을 빌려서라도 읽고자 했다.⁴⁹⁾ 나아가 홍세태는 자신도 지니고

48) 『韓使手口錄』, 9/2, “醫官鄭斗俊亦在座 安藝守使之診脉 問其藥劑”.

49) 정은영, 『조선후기 통신사의 일본 출판 및 서적 유통 탐색』, 『한국문학논총』 81집, 한국문화회, 2019, 274쪽.; 이지영, 『18세기 경화사족의 소설 향유』, 『국문학

있지만 誤字가 많아 비교하고 싶다면 人見友元이 소장하고 있다고 알려진 黃幹의 문집 『黃勉齋集』도 빌려줄 것을 요청한다. 이에 人見友元은 소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京都사람이 보관하고 있다고 들었으니 구해진다면 小山朝三을 통해 부산과 대마도를 왕래하는 배편에 부치겠다고 약속한다.

人見友元이 흥세대가 요청한 책들을 다 빌려주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가 없다. 하지만, 9월 10일의 기록에 부사 곁에 『수호전』과 『속서유기』가 놓여 있었던 것으로 나오고, 『任處士筆語』에는 任公定이 『최효몽』 4책을 자신의 서고에서 찾아 부사에게 바친 것으로 나타난다.⁵⁰⁾ 따라서 人見友元이 이들 중 몇 권을 구해 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이언장은 人見友元도 이 책들을 읽었는지 물었지만, 그가 “중국 속언이 많아 이해하기 어렵고 무익한 책”이라고 냉혹하게 평가하자 단지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읽었다며 머쓱해한다.⁵¹⁾

4. 마무리

이상으로 임술통신사(1682) 필담집인 『韓使手口錄』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韓使手口錄』의 형성배경을 살폈다. 임술통신사는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장군 襲職과 관련한 경조사절이었지만, 조선을 대표하는 문화적 소양을 갖춘 사행원이 대거 참여한 문화사절이기도 했다. 일본 측 인사들도 통신사를 맞아 접대하는 본연의 임무 외에 통신사와 교류를 적극

연구』 21호, 국문학회, 2010, 70쪽.

50) 任公定, 『任處士筆語』, “催曉夢四冊 搜搜書庫 僅得之 備電囑 是老爺欲見之 雖一部幸幸”.

51) 『韓使手口錄』, 9/10, “余曰否 此等書多中國之俗諺 不通中國之言 則難解之 又无益書乎…副使曰 稍通中國之言 故旅館偶觀之 慰寂寥耳”.

적으로 희망한 결과, 20일을 머문 江戸에서 다양한 문화교류가 펼쳐질 수 있었다. 人見友元은 접대를 총괄하는 스승의 아들을 보좌하는 막부의 儒官으로, 사행원과 일본인의 교류를 주선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필담을 정리하여 『韓使手口錄』을 엮게 되었다.

둘째, 『韓使手口錄』의 형식적 특징을 살폈다. 『韓使手口錄』은 항목 중심이 아니라 일기체로 기록된 필담집으로, 날씨는 빠져 있지만 교류의 시간과 공간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 또 시문도 수록하고 있지만 필담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오로지 人見友元 개인의 관점에서 江戸에서 이루어진 필담만을 담고 있다. 다만, 인명을 기록할 때 이름·호·관직 등을 혼용하는 등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韓使手口錄』의 내용적 특징을 살폈다. 『韓使手口錄』에는 이전의 사행록이나 필담창화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소동’이라는 새로운 문화교류의 주체가 등장한다. 또 꼼꼼하고 상세한 기록으로 당시 문화교류 현상이 생동감 있게 묘사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필담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정보도 알려 준다. 특히 人見友元과 흥세대의 국경을 초월한 진술한 사감이 잘 드러날 뿐 아니라, 필담·창화·서화·음악·의학·서적 등 통신사를 통한 양국의 다양한 문화교류 양상을 구체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었다.

이처럼 『韓使手口錄』은 임술통신사가 江戸에 머물고 있을 때 이루어진 필담을 통해 양국 문사 교류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문화교류사적 의의를 지닌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人見友元, 『韓使手口錄』, 일본 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청구번호 178-0534).
- 구지현 역주, 『韓使手口錄·任處士筆語』, 보고서, 2013.
- 김지남, 『東槎日錄』
- 홍세태, 『柳下集』
- 홍우재, 『東槎錄』

2. 논저

- 구지현, 「1682년 한일 문사 교류 담당층의 확립과 소통의 확대」, 『열상고전연구』 32집, 열상고전연구회, 2010, 83-110쪽.
- 箕輪吉次, 「동아시아 문화교류와 통신사 필담창화집; 임술(壬戌) 1682년 사행(使行)과 후지산시(富士山詩)」, 『동방학지』 153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1, 51-107쪽.
- 박태규, 「발해의 대일 사신 파견과 붓카이가쿠(渤海樂)-<신마카(新靺鞨)>를 중심으로」, 『민족무용』 19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세계민족무용연구소, 2015, 155-179쪽.
- 박화진·김병두, 『에도 공간 속의 통신사-1711년 신묘통신사행을 중심으로』, 한울아카데미, 2010.
- (사)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엮음, 『조선통신사 옛길을 따라서2』, 한울, 2008.
- 松田 甲, 『日鮮史話』, 朝鮮總督府, 1926.
- 신기수·仲尾 宏, 『圖說·朝鮮通信使 旅』, 明石書店, 2000.
- 신기수, 『新版 朝鮮通信使往來』, 明石書店, 2002.

- 羽塚啓明, 『正徳觀樂記』, 『東洋音樂研究』 1권 4호, 동양음악연구회, 1937, 39-50쪽.
- 이원식, 『天和度朝鮮信使裨將洪世泰と日本文士の筆談唱酬について』, 『朝鮮學報』 98집, 조선학회, 1981.
- 이원식, 『朝鮮通信使の研究』, 思文閣出版, 1997.
- 이지영, 『18세기 경화사족의 소설 향유』, 『국문학연구』 21호, 국문학회, 2010, 67-95쪽.
- 장진엽, 『조선과 일본, 소통을 꿈꾸다』, 민속원, 2022.
- 정은영, 『조선후기 통신사의 일본 출판 및 서적 유통 탐색』, 『한국문학논총』 81집, 한국문학회, 2019, 257-298쪽.
- 한태문, 『통신사 왕래를 통한 한일 문화교류』, 『한국문학논총』 41집, 한국문학회, 2005, 211-235쪽.
- 한태문, 『1682년 통신사 필담창화집 『和韓唱酬集』에 반영된 한일문화교류 연구』, 『한국민족문화』 78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1, 65-101쪽.

<Abstract>

A study on *Hansasugurok*(韓使手口錄), a
Collection of Writing conversation by the
Imsul Tongsinsa(1682)*

Han, Tai-Moon**

This article examines the '*Hansasurok*', a collection of writing conversation by the Imsul Tongsinsa(1682).

First,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Hansasurok*' was examined. The Imsul Tongsinsa was a cultural delegation in which a large number of envoys representing Joseon's cultural sophistication participated. As a result of Japanese officials actively engaging in exchanges beyond their primary duty of entertaining the communications company, various cultural exchanges were able to take place during the 20 days spent in Edo(江戸). Hitomi Yuken(人見友元), the shogunate official in charge of hosting the envoys, facilitated exchanges between the envoys and the Japanese. He also compiled writing conversation during this process into the '*Hansasugurok*'.

Second, the formal characteristics of '*Hansasugurok*' were examined. '*Hansasu Gurok*' is a collection of writing conversation recorded in a diary format rather than organized by topics. Although it does not mention the weather, it clearly records the time and plac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2-Year Research Gra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 Pusan National University

of interactions. It also includes poems, but the majority consists of writing conversation, that took place in Edo from the personal perspective of Hitomi Yuken. However, the recording of personal names is notably somewhat inconsistent.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tent of *'Hansasugurok'*. *'Hansasurok'* introduces a new agents of cultural exchange, Sodong (小童) not found in previous envoy records or collections of writing conversation and poetry. Furthermore, the meticulous and detailed records vividly portray the cultural exchanges of the time and provide new information about writing conversation methods. In particular, *'Hansasugurok'* is not only clearly reveals the sincere and transcendental friendship between Hitomi Yuken and Hong Saetae, but also effectively reflects various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writing conversation, poetry, calligraphy, painting, music, medicine, and books.

As such, the *'Hansasurok'* can be said to be a text with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at it accurately reflects the diverse and specific aspects of literary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written conversations that took place while the Imsul Tongsinsa was staying in Edo.

Key Words: Hitomi Yuken(人見友元), Hansasugurok(韓使手口錄), Imsul Tongsinsa(1682), writing conversation, cultural exchange.

■ 논문접수 : 2025년 11월 28일

■ 심사완료 : 2025년 12월 15일

■ 게재확정 : 2025년 12월 15일